

또 더블더블... “로드, 막을 길 없다”

〈21득점·11리〉

KT, 80-64로 인삼공사 꺾고 3연승
2위 전란에 2게임 차...선두 굳히기

KCC 단독3위...모비스 8연패 탈출



선두 부산 KT가 안양 인삼공사를 가볍게 꺾고 정규리그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KT는 27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2010~2011 프로농구' 한국 인삼공사와의 홈경기에서 21득점·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용병 찰스 로드의 맹활약을 앞세워 80-64로 이겼다.

3연승을 달린 KT는 34승 12패가 돼 2위 인천 전자랜드와의 승차를 2경기로 벌리고 선두 굳히기에 돌입했다. 반면 인삼공사는 3연패 수렁에 빠지는 한편 이번 시즌 KT 상대 전적 6전 전패를 기록하는 수모를 맛봤다.

KT는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1쿼터 중반 조동현과 표명일의 3점슛으로 연거푸 동점과 역전에 성공했다. 20-17로 간신히 앞선 채 시작한 2쿼터 초반에도 연이은 턴오버로 위기를 맞았다가 로드의 득점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기운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승부의 흐름을 빼앗아 온 건 3쿼터 초반. 시작 휘슬과 동시에 5분 동안 인삼공사를 2득점으로 묶어 놓은 후 로드와 송영진의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과 로드의 리바운드, 블록슛까지 계속 성공하면서 11점차까지 달아났다.

3쿼터 막판에는 조성민의 외곽포까지



▲ 안들려요 안들려 LG 강을준 감독(오른쪽)이 KCC와의 프로농구 원정경기에서 4쿼터 중반 문태영의 테크니컬파울 판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강 감독은 결국 퇴장당했다. 전주 | 연합뉴스

▶ 골밑돌파! KT 승리의 수훈감인 조성민(오른쪽)이 한국인삼공사와의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성공했고, 4쿼터가 시작하자마자 로드가 덩크슛을 꽂아 넣으면서 사실상 경기 분위기를 압도했다. 또 로드가 경기 종료 3분 전 5분칙으로 퇴장 당한 이후에도 송영진과 이상일이 득점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점수차를 유지했다. 조성민은 3점슛 4개를 포함해 14득점을 기록했고, 박상오가 13득점·5리바운드로 뒤를 받쳤다. 인삼공사는 이정현(21득점·3리바운드)이 분전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한편 전주 KCC는 창원 LG와의 홈경기에서 하승진(15득점·16리바운드)과 추승균(20득점·4어시스트)의 활약에 힘입어 81-74로 승리, 시즌 30승(17패) 고지를 밟았다. 또 원주 동부를 반 경기차로 제치고 단독 3위로 올라섰다. 울산 모비스는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대구 오리온스를 88-63으로 꺾고 8연패에서 벗어났다. 양동근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17득점·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승을 이끌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 콤팩트 뉴스

백승호, 日 하프마라톤 1시간3분47초 우승

한국 남자육상 장거리의 기대주 백승호(21·건국대)가 제33회 이누아마 하프마라톤대회에서 우승했다. 백승호는 27일 일본 아이치현 이누아마시에서 열린 대회에서 1시간03분47초를 찍어 일본 선수들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일본 디스턴스 챌린지대회 남자 5000m에 출전해 13분42초98로,

4년 만에 한국기록을 새로 썼던 백승호는 한국 마라톤을 이끌고 갈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남현희, 펜싱 플뢰레 국제그랑프리 3위

한국 펜싱의 간판스타 남현희(30·성남시청)가 올해 첫 그랑프리 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남현희는 27일(한국시간)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막을 내린 여자 플뢰레 국제그랑프리 펜싱선수권대회에서 아리아나 에리고(이탈리아)와 함께 동메달을 획득했다.

KBL 남자프로농구 (27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T	46	34	12	0.739	-	3승
2	전자랜드	46	32	14	0.696	2	1승
3	KCC	47	30	17	0.638	4.5	1승
4	동부	46	29	17	0.630	5	2승
5	삼성	46	25	21	0.543	9	2승
6	LG	46	22	24	0.478	12	1패
7	SK	46	18	28	0.391	16	3패
8	인삼공사	46	15	31	0.326	19	3패
8	모비스	46	15	31	0.326	19	1승
10	오리온스	47	11	36	0.234	23.5	6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팀	득점	팀
① 헤인즈 삼성	23.5	① 양동근 모비스	5.3	① 알렉산더 LG	10.0
② 문태영 LG	21.6	② 전태봉 KCC	5.0	② 벤슨 동부	9.9
③ 레더 SK	20.9	③ 주희정 SK	4.9	③ 레더 SK	9.6
④ 사이먼 인삼공사	20.2	④ 강혁 삼성	4.6	④ 힐 전자랜드	9.2
⑤ 벤슨 동부	18.0	⑤ 이형석 삼성	4.6	⑤ 다나렐스 KCC	9.1

토요일 경기결과		(26일)	
SK	63	71	동부
삼성	100	86	KCC
전자랜드	78	69	오리온스

일요일 경기결과		(27일)	
KT	80	64	인삼공사
KCC	81	74	LG
오리온스	63	88	모비스

KOBL 여자프로농구 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27일)

WKBL 여자프로농구 (27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신한은행	32	28	4	0.875	-	2승
2	삼성생명	32	21	11	0.656	7	2패
3	KDB생명	31	16	15	0.516	11.5	1패
4	신세계	32	16	16	0.500	12	1승
5	국민은행	32	11	21	0.344	17	2승
6	우리은행	33	4	29	0.121	24.5	2패

토요일 경기결과		(26일)	
삼성생명	61	65	국민은행

일요일 경기결과		(27일)	
우리은행	62	70	신한은행

KOBL 여자 프로배구 (27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건설	19	16	3	0.84	1679	1523	6승
2	도로공사	20	13	7	0.65	1658	1583	1패
3	한국생명	20	10	10	0.50	1775	1721	2승
4	인삼공사	20	7	13	0.35	1595	1659	1승
5	GS칼텍스	19	3	16	0.16	1410	1631	8패

토요일 경기결과		(26일)	
도로공사	0	3	흥국생명

일요일 경기결과		(27일)	
인삼공사	3	0	GS칼텍스

KOBL 남자 프로배구 (27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25	21	4	0.84	2099	1785	10승
2	현대캐피탈	25	18	7	0.72	2032	1907	2승
3	삼성화재	25	12	13	0.48	2008	1993	1승
4	LIG손해보험	25	12	13	0.48	1959	1970	1패
5	KEPCO45	24	9	15	0.38	1885	1949	1승
6	우리캐피탈	25	9	16	0.36	2106	2154	5패
7	상무신협	25	6	19	0.24	1856	2187	7패

토요일 경기결과		(26일)	
LIG손해보험	0	3	삼성화재

일요일 경기결과		(27일)	
상무신협	0	3	대한항공

일요일 경기결과		(27일)	
우리캐피탈	0	3	현대캐피탈

GOLF (27일)

PGA TOP10	
마야코바 클래식 3라운드	
① 와그너(미국)	-13
② 스트라우트(미국)	-12
③ 게이츠(미국)	-11
④ 레빈(미국)	-11
⑤ 라일(호주)	-11
⑥ 강성훈(한국)	-10
⑦ 메릭(미국)	-10
⑧ 베크만(미국)	-10
⑨ 퀴니(미국)	-10
⑩ 베어드(미국)	-10

경기예고

오늘의 경기 (28일)

농구 ●2010-2011 KBL 원터리그(KCC연승)

●전자랜드-상무(오후1시), 오리온스-KT(오후3시), KCC-SK(오후5시)

●2011 세계 주니어 스피드스케이팅 챔피언십(핀란드 세이나요키)

카이머 “세계랭킹 1위 꿈같아”

WGC 우승 상관없이 확정

양용은 아쉽게 8강서 탈락

마르틴 카이머(26·독일)가 월드골프챔피언십 액센추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850만 달러) 결승에 올라 세계랭킹 1위 등극을 예약했다.

카이머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마라나 리즈캠프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경기에서 미구엘 앙헬 히메네스(스페인)와 버바 왓슨(미국)을 잇따라 꺾고 결승에 올랐다.

카이머는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계랭킹에서 32강전에서 탈락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오르게 됐다.

카이머의 세계랭킹 1위 등극은 세계 골프의 새로운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젊다. 경쟁자 웨스트우드와 필 미켈슨(미국)이 마흔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힘입어 유리하다. 게다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시간이 지날수록 랭킹이 떨어져 당분간 그의 세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카이머는 바닥부터 경험을 쌓고 올라오며 성공신화를 이뤘다.

2005년 프로로 전향, 유러피언 3부투어와 2부투어를 차례로 거쳤고, 2007년 1부투어에 합류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유러피언 통산 9승을 따냈고 작년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첫 메이저 트로피를 가져갔다.

카이머는 “대회 도중에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일 우승한다면 더 좋겠지만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결승에서 맞붙은 상대는 세계랭킹 9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다.

이 대회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파죽지세의 상승세였던 양용은(39)은 8강에서 매트 구차에 달미를 잡혔다. 3번홀까지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선전했지만 이후 갑작스런 샷 난조로 전반에만 4DN으로 밀렸다. 후반 추격을 시도한 양용은은 10번과 13번홀을 따내 2DN으로 따라갔지만 남은 홀이 부족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웹 2년만에 우승...최나연은 6위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최종

‘여자 백상아’ 카리 웹(호주·사진)이 미 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대회 HSBC 위민스 챔피언스(총상금 140만 달러)에서 끈질긴 추격 끝에 역전 우승했다.

웹은 27일(한국시간)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파72·6547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아리무라 치에(일본·12언더파 276타)를 1타 차로 따돌렸다. 2009년 3월 J골프 피닉스 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맞은 우승이자



LPGA 통산 37승째다.

시즌 첫 승에 도전한 태극낭자들은 톱10 진입에 만족했다. 유선영(22·인삼공사)은 버디 4개, 보기 1개로 3타를 더 줄였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4위에 올랐고 최나연(24·SK텔레콤)은 1타 밖에 줄이지 못하면서 6언더파 282타로 전날 3위에서 6위로 뒷걸음 쳤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